조성봉, 손해인(2024). 돈? 가치관? 물질주의가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탐색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8(1), 39-53. ISSN 1738-0391(Print). 2713-9662(Online). http://dx.doi.org/10.22626/jkfrma.2024.28.1.004

돈? 가치관?
물질주의가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탐색*

Lack of Money? Attitude toward Money?
The Influence of Economic Factors and Material Values on the Marital Intention among Unmarried Young Adults in South Korea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 수 **조 성 봉****
한동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손 해 인**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 Social Welfare, Hando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Cho, Sung-Bong
Dept. of Psychology, Handong University
Master's course Son, Hae-in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논의
참고문헌

〈초록〉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미혼 청년들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된 경제적 변인들을 객관적/주관적, 개인 수준/부모 수준으로 구분하여 변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고, 그러한 변인들의 영향력을 고려한 상황에서 물질에 대한 가치관, 즉 물질주의(성공판단, 소유중심, 행복추구)가 결혼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성별에 따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2-30대 미혼 남녀 5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남성과 여성 각각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여성의 소득은 결혼의향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지만 남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주관적 계층인식은 남녀 모두의 결혼의향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결혼지원 기대 정도는 남성의 결혼의향을 예측하였다. 넷째, 물질에 대한 가치관은 다양한 경제적 요인들의 영향을 고려한 상황에서도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의 경우 물질의 소유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성공을 판단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을 가질 확률이 높고, 물질의 소유를 통해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을 갖지 않을 확률이 높았다. 남성의 물질적 가치관은 결혼의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의의와 추후 연구를 통한 추가적 탐색과 이해의 필요는 논의를 통해 제시하였다.

주제어: 미혼남녀, 결혼의향, 경제적 변인, 물질주의

*이 연구는 2023년도 한국가족치료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주저자, 교신저자: 조성봉(scho@handong.edu), http://orcid.org/0000-0002-2806-8790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economic factors such as income, parental support, perceived social status, and financial distress are associated with marital intentions among unmarried young adults in their 20's and 30's. Data were collected by an online survey, and a total of 567 people participated nationwide. Results from a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suggest that (1) women's income was associated with their marital intentions, but not men's; (2) perceived social status was associated with marital intentions among both men and women; (3) men's expected parental support for marriage was associated with marital intentions; and (4) when three subfactors of the material value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among women, it was found that the use of possessions to judge one's own success and that of others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ir marital intentions, and the belief that possessions and the acquisition of materials lead to happiness and satisfaction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ir marital intentions. Further discussion is provided about the interpretation and implications of the results.

Key words: Marital intentions, Material values, Economic factors, Unmarried young adults

Ⅰ. 서론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 2002년 이래로 초저출산의 기준인 1.3명 이하를 계속 유지해 왔음은 물론이고, 2018년 처음으로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내려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출산이 결혼 관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바, 당면한 초저출산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접근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국내 미혼청년들의 결혼의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왔다. 그동안 다양한 매체들은 현 세대의 많은 미혼청년들이 3포, 즉 연애, 결혼, 출산의 포기를 선언하는 (특히 최근에는 5포, 7포를 거쳐 N포로 이어진) 주된 이유가 경제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즉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 직장과 충분한 수입을 갖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제시해 왔다. 그러한 관점에 기반하여 많은 연구들도 그동안 다양한 경제적/물질적 변인들 (예를 들면, 소득수준, 자산, 취업 여부, 부모 경제 수준, 주관적 계층 수준 등)이 실제로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 왔다. 최근에도 조성호와 변수정(2020)은 미혼남녀의 소득수준이, 박주희(2017)는 정규직 여부가 그들의 결혼의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고, 오지혜(2020)와 황인자(2021)의 경우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처럼 경제적, 물질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의향에 대한 경제적, 물질적 요인들의 실질적인 영향력과 그러한 영향력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 즉 무엇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중요한지 여부 등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이 같은 한계는 결혼의향을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제적/물질적 변인들의 실질적 설명력의 크기를 분명하게 제시하거나, 혹은 그와 같은 변인들 간 상대적 영향력의 비교를 포함하는 통합적인 연구들이 부족함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현실에서는 미혼 청년들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물질적 요인들이 복수의 차원과 범주(예를 들면, 개인 vs. 부모 수준, 혹은 객관적 수치 vs. 주관적 평가 등)에서 상당히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각각의 연구에서는 관심 변인(focal variable)에 대한 집중으로 인해 결혼의향에 대한 다양한 경제적/물질적 변인들의 상대적, 혹은 실질적인 영향력 정도에 대한 탐색은 제한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경제적/물질적 요인들의 실질적 영향력을 보다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변인의 통계적 유의성 여부의 확인을 넘어, 결혼의향에 대한 경제적 요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의 확인을 통해 결혼의향에 보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이고 그 크기가 어떠한지를 제시할 수 있는 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결혼의향 관련 여러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가치관을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예를 들면, 박주희, 2016; 조예랑, 2020; 윤태실 · 민주홍, 2020 등). 연구들에 따르면 주로 결혼, 출산에 대한 개인의 입장이나 태도가 그와 같은 가치관 요인으로 제시되어 왔는데, 예를 들어 결혼에 대한 이미지, 안정-낭만적, 보수-도구적 결혼관 등이 결혼의향을 분명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원아름, 2015; 최연주 · 문정희 · 안정신, 2020). 이와 같은 결혼 관련 가치관 연구의 결과들은 개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태도나 관점이 결혼의향을 주요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제시하는데, 이 같은 관점이나 가치관의 영향은 경제적, 물질적 요인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다. 즉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결혼의향에 대해 소득이나 자산과 같은 실질적, 객관적 변인들이 미치는 영향과는 별개로, 평소 개인이 경제적 요인이나 물질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나 관점 또한 그 사람의 결혼의향

에 영향을 미치거나 실제로는 더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이수민과 조성봉(2022b)은 미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한 잠재프로파일 분석에서 물질에 대한 가치관, 즉 물질주의가 그들이 서로 다른 결혼-자녀 가치관 유형의 집단에 속할 확률에 영향을 미침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물질에 대한 가치관, 즉 미혼 남녀의 경제/물질에 대한 태도가 그들의 결혼의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직접적으로 탐색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에 대한 경제적/물질적 변인들의 유의한 영향력을 확인, 제시하는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그와 같은 변인들의 영향과 의의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이해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기존에 제시된 결혼의향을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제적/물질적 요인들의 영향과는 별개로, 물질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결혼의향과 관련된 기존 문헌에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의향에 대한 경제적/물질적 요인들 영향력의 통합적인 이해 및 결혼의향에 대한 물질주의의 영향력을 탐색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결혼의향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제시하는 결과들에 기반하여, 미혼남녀들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는 여러 경제적 요인들을 개인과 부모 차원, 객관적 및 주관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해당 요인들이 각각 결혼의향을 어떻게 예측하는지, 그러한 요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이 같은 경제적 요인들, 즉 실제 소득의 정도, 부모의 경제력이나 지원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한 태도, 즉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지 확인하고, 기존 분석에 포함된 경제적 요인들과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들에서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분석에 포함하여 그 영향력들도 함께 고려하고, 선행연구들에 기반하여 결혼의향에 대한 주요 변인들의 영향력의 남녀 간 차이를 탐색하기 위해 성별에 따라 남성과 여성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다양한 경제적/물질적 요인들 중 미혼 남성과 여성 각각의 결혼의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경제적/물질적 요인들의 영향을 고려한 상황에서 물질적 가치관은 미혼 남성과 여성 각각의 결혼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결혼의향을 예측하는 것으로 제시된 경제적 요인들

1) 개인 소득 수준 및 취업 여부

여러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소득수준이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고 있다. 박주희(2017)는 서울/수도권에 거주하는 평균 초혼 연령 이상의 미혼남녀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현재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고, 최효미(2017)도 2-30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을 가질 확률이 높지만 동시에 결혼을 미루는 결혼 연기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결혼의향에 대한 소득의 영향을 성별에 따라 살펴본 연구들의 경우, 남성은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는 소득과 결혼의향 간에 유의한 상관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조성호 · 변수정, 2020).

반면, 소득이 결혼의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 영향력의 크기가 제한적이라는 연구결과들도 확인된다. 김상윤(2021)은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같은 개인의 경제적 요인들이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 것으로 기존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였고, 권소영과 동료들도 청년 남녀의 본인 근로소득이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권소영 외, 2017). 또한 평균 혼인 연령을 넘긴 가임기 미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소득수준은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김혜영 · 선보영, 2011). 한편 경제활동 여부 혹은 취업 여부와 결혼의향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경우 취업 중인 경우 비취업인 경우보다 2배 정도 결혼의향이 높아져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홍은영, 2011).

이와 같이 다수의 연구들은 개인의 소득수준, 혹은 소득과 연관된 변인들이 결혼의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동시에 그러한 영향이 유의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여러 연구들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의 성별에 따라 소득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남성의 경우 대개 소득과 결혼의향 간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은 그렇지 않은 패턴을 보이기도 하였다.

2) 사회경제적 수준에 대한 인식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들 중에는 앞서 살펴본 소득과 같은 객관적 요인 외에 주관적 요인, 즉 개인이 인식하는 경제적 능력이나 수준의 영향을 탐색한 연구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양다연과 유계숙

(2020)은 미혼 남녀들이 자신의 주관적 사회계층을 높게 인식할수록 더 높은 결혼의향을 가지는 것으로 제시한 바 있다. 권소영 외(2017)는 성별에 따른 연구를 통해 남성의 경우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지각할수록 결혼의향이 높았지만 여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결과들은 미혼남녀들이 자신의 경제적 능력 및 사회적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거나 스스로 평가하는지가 결혼의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에서 결혼 및 출산/양육과 관련되어 자주 언급되는 수저론, 즉 부모가 돈이 없으면 결혼하면 안되거나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주장의 경우에도, 사실 주관적 인식, 즉 개인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즉 같은 처지(소득 수준, 주거 수준 등)에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괜찮다고 느끼는지, 아니면 더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은 부족하고 충분하지 못다고 느끼는지와 같은 경제적, 물질적 요인들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상당히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 부모의 경제력/재정지원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부모의 경제적 수준은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먼저 황인자(2021)의 경우 부모의 경제적 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미혼남녀 집단이 낮게 인식하는 집단보다 결혼의향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이수민과 조성봉(2022a)도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결혼에 대한 태도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고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에 따라 확인하였을 때에는 여성의 경우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지만 남성의 경우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변수정 · 조성호 · 이지혜, 2018).

미혼청년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부모의 경제적 요인들로는 가구소득, 부모의 결혼관련 재정지원 여부, 부모의 경제적 지원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결혼의향에 대한 해당 변인들의 영향의 유의함 여부는 다소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구소득과 부모의 금융자산 수준은 미혼자녀의 결혼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오지혜, 2020) 영향을 미치지 않기도 하는 것으로 제시된 바 있다(원아름, 2015). 또한, 부모가 결혼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은 미혼자녀의 결혼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지만(황인자, 2021),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김상윤, 2021; 이정은, 2017).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여부의 경우 자녀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타나기도 하지만(권소영 외, 2017; 박지수 · 이재림, 2017) 동시에 성별에 따라 차이가 보고되기도 하였는데, 홍은영(2011)의 경우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미혼 남성의 결혼의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4) 경제적 어려움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적 어려움 수준을 탐색한 연구들도 확인할 수 있다. 김희정(2018)은 사회경제적 지위뿐만 아니라 주거, 건강, 여가 등 다양한 측면이 포함된 다차원적 빈곤과 결혼의향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에서, 여성의 경우 일자리가 있더라도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낮은 경우 결혼의향이 낮아짐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빈곤층 남성들의 경우에는 스스로 경제력이 부족하여 결혼이 어려울 것이라 지각하고 생계부양력을 갖추지 못하여 빈곤의 되물림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손지성, 2017). 한편 미래소득에 대한 기대와 결혼의향을 탐색한 연구에서는 남자 대학생들은 미래소득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있었지만 여자 대학생들은 미래소득에 대한 기대가 낮을수록 결혼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박주희, 201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인식/기대도 결혼의향을 유의하게 예측하고, 남녀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경제적 변인들은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 왔지만 그 유의성 여부에 대한 결과들이 안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소득의 경우 그 유의성이 연구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패턴이 지속되는데, 이는 어떤 경제적 요인이 포함되는지, 혹은 어떤 다른 주요 변인과 함께 분석이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에 기반하여 개인의 경제 수준에 대한 지표로 '소득'을, 주관적 인식의 영향을 위한 지표는 '주관적 사회계층'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일제로 일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영하는 지표는 "전일제 직업"을,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으로 분류하여 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탐색하였다.

2. 물질적 가치관

선행연구에 따르면 미혼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은 결혼의향을 예측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확인된다(박선영 · 이재림, 2022). 미혼 남녀가 갖는 결혼에 대한 이미지는 결혼의향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제시된 바 있고(손해인 · 이수민 · 조성봉, 2022), 특히 결혼 관련 가치관, 즉 안정-낭만적 결혼관과 보수-도구적 결혼관, 즉 결혼에 대한 안정적이고 낭만적인 기대와 결혼에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관점은 각각 결혼의향을 긍정적으로, 소득-배타적 결혼관, 즉 결혼보다 성취나 개

인의 삶을 중요시하는 관점은 결혼의향을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원아름, 2015; 조예랑, 2020; 최연주 외, 2020). 한편 결혼의향에 대한 이 같은 결혼관과 다른 요인들과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한 김상윤(2021)의 연구에서는 결혼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며 다른 변인들에 비해 이 같은 가치관 요인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여러 선행연구들은 태도나 가치관 요인이 결혼의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결혼/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가치관 외 다른 가치관/태도 혹은 관점을 반영하는 요인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탐색된 바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 삶에 대한 만족도가 결혼의향을 긍정적으로 예측한다고 제시된 바 있는데(손해인 외, 2022), 이는 일반적으로, 혹은 현 시점에서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결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삶에 대한 만족도는 개인의 태도나 관점을 반영하기는 하지만 또한 현 상황이나 처지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 바 개인의 가치관/관점을 반영하는 요인으로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물질주의는 물질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물질의 소유 및 획득이 삶의 중심이 되어 이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고 또한 삶의 성공의 기준으로 여기는 경향성을 의미한다(Richins & Dawson, 1992). 또한 물질주의는 세속적 소유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반영하는데, 이 같은 경향이 높은 경우 물질의 소유는 개인의 삶의 중심을 차지할 뿐 아니라 삶의 만족과 불만족에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Belk, 1984). 이 같은 물질주의의 영향에 대해서는 외국의 경우 이미 오랜 기간, 상당한 수의 연구들을 통해 탐색되어 왔는데, 최근 제시된 260여 물질주의 관련 연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메타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물질주의는 심리적 웰빙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위험 행동,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 삶의 만족 등)과 매우 분명한 부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Dittmar et al., 2014). 즉 물질주의 경향성은 개인의 심리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보다 최근 들어 물질주의와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물질주의가 정신건강 및 안녕과 부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신희성 외, 2017; 정의준 · 유승호, 2018).

한편, 최근 한 국외 비교 조사에 따르면 물질주의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주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Pew Research Center가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17개 선진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Silver et al., 2021)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들(14개국)에서 가족(Family)이 1순위로 꼽힌 것에 비해 한국에서는 물질적 안녕/행복(Material Wellbeing)이 1순위로 꼽힌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제시된 바 있다. 즉, 한국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능력과 충분한 물질의 소유가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가족이 1위가 아니었던 다른 두 국가들의 경우 건강과 공동체/사회를 각각 1위로 꼽을 것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질적 요인을 자신의 인생을 의미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한 것은 현재 우리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은 다른 나라의 응답자들과는 달리 연구자가 범주화하여 제시한 17개의 인생의 의미의 원천들 중 오직 한 가지만을 택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하나가 바로 물질적 안녕/행복이었음을 고려할 때, 물질에 대한 태도, 가치관이 한국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물질주의 환경에 노출되기 쉽고, 사회 전반에 걸친 물질주의적 문화가 팽배한 현대 사회에서 물질주의와 같은 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관계, 가족, 도덕성, 건강과 같은 내적가치를 대신한다(김경미, 2019). 앞서 언급하였듯이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인들이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물질적 안녕/풍요를 꼽는다는 것은, 결국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계나 가족 같은 내적 가치보다 돈, 자원과 같은 외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동 연구에서 한국의 20대들의 경우 가족이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전체 17개 국가들 중에서 예외적으로 낮은 비율임을 확인할 수 있다(Silver et al., 2021). 또한 문헌을 통해 물질주의와 부부, 연인, 가족 등의 관계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물질주의적 경향이 높은 사람은 가족관계, 부부관계, 친구관계 등에서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Dean, Carroll & Yang, 2007), 이는 연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난다(김경미, 2014). 나아가 높은 물질주의적 가치를 갖는 것는 결혼 및 자녀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확인된다(Li et al., 2015). 또한 이수민과 조성봉(2022b)에 따르면 물질주의 가치관의 하위요인들은 미혼 남녀들의 결혼 및 자녀 가치관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미혼여성의 경우 물질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수록 결혼보다 개인의 생활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처럼 물질주의, 즉 물질에 대한 가치관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주요한 의의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고, 동시에 가족과 관련된 여러가지 요인들도 이 같은 물질주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물질주의가 물질의 소유와 획득을 반영하는 개념임을 고려할 때, 결혼에 반드시 필요한, 혹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지는 물질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치관은 우리나라 미혼 청년들에게 결혼과 관련된 주요한 변인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하지만 이 같은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결혼(및 출산)의향과 어떠한 관계를 갖

는지, 혹은 물질주의가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직접 탐색한 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소 미혼 남녀가 물질에 대해 갖는 태도/관점, 즉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그들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국내 100만명 이상의 패널이 등록되어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전국의 20 ~ 40세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수집하였다. 응답에 참여한 사람들은 남성 271명, 여성 286명으로 총 557명이었으며 연구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남성 30.92세, 여성은 29.49세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대학교 졸업자가 가장 많았는데 남성은 165명으로 61%, 여성은 188명으로 66%를 차지하였다.

2. 연구도구

1) 결혼의향

연구참여자들의 결혼의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귀하의 결혼할 의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의 단일문항을 사용하였으며, '현재/곧 결혼할 의향이 있다', '현재는 없지만 언젠가는 결혼할 의향이 있다',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중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분석을 위해 '현재 결혼할 의향이 있다', '현재는 없지만 언젠가는 결혼할 의향이 있다'에 응답한 경우는 '결혼할 의향이 있다'로,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에 응답한 경우는 '결혼할 의향이 없다'로 코딩하였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에 응답한 경우 결측처리하였다.

2) 부모의 결혼비용 지원 정도

연구 참여자들의 결혼에 대한 부모의 재정 지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만약 귀하가 결혼한다면 귀하의 부모님/가족은 결혼에 필요한 비용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의 단일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6점 리커트 척도로 '0%', '20%', '40%', … '100%'로 구성하였고, 선택지 중 '결혼할 의향/가능성이 전혀 없다'를 추가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하여 이후 분석에서는 이에 응답한 경우 결측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연구 참여자의 결혼에 대해 부모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전일제 직업 여부

연구 참여자들의 고용형태를 측정하기 위해 '현재 귀하의 고용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의 단일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무직', '파트타임', '비정규직(전일제)', '정규직(전일제)', '자영업', '기타'로 구성되었다. 분석에는 '비정규직(전일제)'과 '정규직(전일제)'을 '전일제'로 '무직', '파트타임', '자영업'은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남성 (N=271)		여성 (N=286)	
변인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나이			30.92 (6.05)		29.49 (5.97)
종교	가톨릭	27(10.0)		17(5.9)	
	개신교	41(15.1)		37(12.9)	
	불교	16(5.9)		19(6.6)	
	기타	1(0.4)		0(0)	
	무교	186(68.6)		213(74.5)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7)		0(0)	
	고등학교 졸업	89(32.8)		77(26.9)	
	대학교 졸업	165(60.9)		188(65.7)	
	대학원 졸업	15(5.5)		21(7.3)	
지역	서울특별시	73(26.9)		98(34.3)	
	서울 제외 수도권	103(38.0)		85(29.7)	
	지방 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31(11.4)		43(15.0)	
	기타 시군구	64(23.6)		60(20.9)	

'비전일제'로 코딩하여 사용하였고, '기타'는 결측 처리하였다.

4) 소득

연구 참여자들의 월 평균 소득을 측정하기 위해 '귀하의 월 평균 개인 근로 소득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의 단일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없음,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으로 구성된 6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5) 주관적 사회계층 수준

연구 참여자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본인의 사회계층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현재 귀하의 소득/교육/주거 수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귀하는 한국 사회에서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보십니까?'의 단일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해당 문항은 9점 리커트 척도로 '하의 하'(1점), '하의 중'(2점) … '상의 상'(9점)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사회계층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6) 경제적 어려움

연구 참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Lempers, Clark-Lempers & Simons(1989)가 개발한 경제적 어려움 척도(Economic Hardship Questionnaire: EHQ)와 김영희(1996)가 사용한 질문을 참고하여 어주경(1988)이 개발, 남희수(2009)가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를 측정하는 척도로, '현재의 수입으로는 생활하기 부족하다', '돈이 부족해서 갖고 싶은 물건을 구입하지 못한 적이 있다.' 등과 같은 문항을 포함한 총 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였음을 의미한다. 남희수(2009)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88로 나타났다.

7) 물질주의 가치관

물질주의 가치 추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Richins & Dawson(1992)이 개발하고 유지혜와 설경옥(2018)이 타당화한 한국판 물질주의 척도(Material Values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가 소유한 것들은 내가 얼마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준다.' 등을 묻는 '성공판단' 5문항, '쇼핑은 내게 큰 기쁨을 준다' 등의 '소유중심' 6문항, '더 많은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주어진다면 나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 등의 '행복추구'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5문항이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물질주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유지혜와 설경옥(2018)의 연구에서 보고한 Cronbach's α 값은 성공판단은 .74, 소유중심은 .71, 행복추구는 .6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성공판단은 .77, 소유중심은 .68, 행복추구는 .65, 여성의 성공판단은 79, 소유중심은 .72, 행복추구는 .69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5.0과 Mplus 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고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Mplus 8.0 프로그램을 통해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4단계로 나누어 실행하였다. 결측치로 인한 자료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완전정보최대우도법(FIML: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적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빈도분석의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의 결혼의향에 대해 살펴보면, 남성은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91명(75%)이었으며 여성은 157명(63%)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결혼비용지원 정도는 남성의 경우 '20%' 정도 지원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70명(29%)로 가장 많았으며, '40%' 54명(22%), 60% 40명(16.5%)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또한 부모님이 자신의 결혼 비용 중 20%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2명(29%)로 가장 많았으며, 40% 55명(25%), 60% 21명(9.7%) 순이었다. 전일제 직업 여부의 경우, 전일제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 남성은 152명(59%)이었으며, 여성은 143명(52%)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한 경제적 어려움 정도의 평균값은 남성은 2.98, 여성은 2.85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소득, 학력, 주거 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회계층 수준의 평균값은 남성은 4.03, 여성은 4.14로 둘 다 '중의 하'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물질주의 가치관의 하위요인들 중 성공판단의 평균

값은 남성은 2.75, 여성은 2.73이었으며, 소유중심의 평균값은 남성은 2.41, 여성은 2.56, 행복추구의 경우 남성은 2.65, 여성은 2.62로 나타났다.

2)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3〉(남성)과 〈표 4〉(여성)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남성의 소득은 그들의 주관적 사회계층과정적으로 유의한 관계(.229, p<.01), 경제적 어려움과는 부적으로 유의한 관계(-.253, p<.01)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소득과 부모의 결혼비용 지원 정도와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주관적 사회계층은 부모의 결혼비용 지원 정도와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r=.225, p<.01). 또한 남성의 주관적 경제적 어려움은 물질주의 하위요인들과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공판단(r=.171, p<.01), 소유중심(r=.123, p<.05), 행복추구(r=.327, p<.01)와 각각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달리 소득은 그들의 주관적 사회계층 및 경제적 어려움 수준과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성의 소득은 물질주의의 하위요인 중 성공판단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118, p<.05). 여성의 경제적 어려움과 물질주의-성공판단(r=.242, p<.01), 물질주의-소유중심(r=.152, p<.01), 물질주의-행복추구(r=.403, p<.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

성별		남성(N=271)		여성(N=286)	
변인	구분 및 하위요인	n(%)	평균(표준편차)	n(%)	평균(표준편차)
결혼의향	있다	191(75.2)		152(62.8)	
	없다	63(24.8)		93(37.2)	
부모의 결혼비용 지원 정도	100%	8(3.3)		11(5.1)	
	80%	18(7.4)		15(6.9)	
	60%	40(16.5)		21(9.7)	
	40%	54(22.2)		55(25.3)	
	20%	70(28.8)		62(28.6)	
	0%	53(21.8)		53(24.4)	
전일제 직업여부	있다	152(58.7)		143(52.0)	
	없다	107(41.3)		132(48.0)	
소득			3.47(1.68)		3.06(1.53)
주관적 사회계층 수준			4.03(1.71)		4.14(1.62)
경제적 어려움			2.98(.91)		2.85(.96)
물질주의	성공판단		2.75(.64)		2.73(.61)
	소유중심		2.41(.54)		2.56(.54)
	행복추구		2.65(.55)		2.62(.57)

〈표 3〉 남성의 측정변인들 간 상관관계

	남성						
	1	2	3	4	5	6	7
1	-						
2	.232**	-					
3	-.246**	-.403**	-				
4	.052	-.225**	.081	-			
5	.005	-.036	.171**	.074	-		
6	-.068	-.068	.123*	-.021	.526**	-	
7	-.086	-.093	.327**	.001	.611**	.528**	-

주: *p<.05, **p<.01, ***p<.001

1: 개인소득, 2: 주관적 사회계층, 3: 경제적 어려움, 4: 부모의 결혼비용 지원정도, 5: 물질주의-성공판단, 6: 물질주의-소유중심, 7: 물질주의-행복추구

3)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미혼 남녀의 경제적 변인들과 물질주의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4단계로 나누어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1단계 분석인 모형 1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소득이 결혼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남성의 경우 소득은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반면, 교육과 개신교는 한계적으로 유의하였다(각각 OR=1.713, p<.10; OR = 2.564, p<.10). 이는 남성의 교육수준이 한 단계 증가할수록, 그리고 무교인 경우 보다 개신교인 경우에 결혼의향이 없을 경우보다 있을 확률이 각각 1.7배와 2.6배 가량 증가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달리 소득이 결혼의향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OR=1.257, p<.05), 이는 월 소득수준이 한 단계(100만원) 높아질수록 결혼의향이 없을 경우보다 있을 확률이 1.26배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종교의 경우 개신교 여부가 결혼의향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OR=3.212, p<.05), 무교인 경우에 비해 개신교일 때 결혼의향이 있을 확률이 3.2배 가량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의 교육수준은 결혼의향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았다. 모형 1의 설명력은 남성은 .071, 여성은 .092로 나타났다.

두 번째 분석(모형 2)에서는 소득의 영향을 고려한 상황에서 다른 다양한 개인의 경제적 요인(전일제 직업, 경제적 어려움, 주관적 사회계층)을 추가하여 그 영향력을 탐색하였다. 먼저 남성의 경우 주관적 사회계층 수준이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OR=1.227, p<.05), 이는 남성이 인식하는 자신의 사회계층의 수준이 한 단계 증가할수록 결혼의향이 있을 확률이 1.23배 증가함을 의미한다. 전일제 직업 여부와 경제적 어려움은 그들의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의 경우 주관적 사회계층 수준은 그들의 결혼의향에 한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OR=1.191, p<.10). 전일제 직업 여부와 경제적 어려움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모형1에서 여성의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개신교 여부는 모형2에서도 유의하였으나(OR=3.019, p<.05) 소득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의 설명력은 남성은 .100, 여성은 .105로 나타났는데, 남성의 설명력 증가폭이 여성에 비해 컸고 주관적 사회계층이 설명력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 3에서는 모형1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부모의 경제적 요인으로 미혼청년들이 예상하는 부모의 결혼비용지원 정도를 추가하여 그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의 경우 부모의 결혼비용지원 정도는 결혼의향에 한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OR=.791, p<.10) 부모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결혼비용의 비율이 낮아질수록 결혼의향이 없기보다 있을 확률이 감소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편, 여성의 경우 부모의 결혼비용지원 정도는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모형3의 설명력은 남성은 .097, 여성은 .099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형4에서는 모든 경제적 변인들의 영향력을 고려한 상황에서 물질주의의 하위요인들(성공판단, 소유중심, 행복추구)을 추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의 경우 성공판단이 한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결혼의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OR=1.722, p<.10) 이는 물질을 통해 성공을 판단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없을 경우보다 있을 확률이 1.7배 가량 증가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다른 물질주의 하위요인들은 남성이 결혼의향을 가질 확률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았다. 한편, 여성의 경우 물질주의의 하위요인 중 성공판단과 행복추구가 결혼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공판단은 결혼의향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OR=2.390, p<.01), 이는 물질로 성공을 판단하는 경향성이 한 단계 증가할수록 결혼의향이 없을 경우보다 있을 확률이 약 2.4배 높아짐을 의미한다. 반대로 행복추구는 결혼의향을 부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OR=-.353, p<.01), 이는 물

〈표 4〉 여성의 측정변인들 간 상관관계

	여성						
	1	2	3	4	5	6	7
1	-						
2	.100	-					
3	-.127*	-.477**	-				
4	.136*	-.387**	.273**	-			
5	.099	-.048	.242**	.004	-		
6	-.016	-.074	.152**	.006	.563**	-	
7	-.014	-.245**	.403**	.080	.668**	.525**	-

주: *p<.05, **p<.01, ***p<.001

1: 개인소득, 2: 주관적 사회계층, 3: 경제적 어려움, 4: 부모의 결혼비용 지원, 5: 물질주의-성공판단, 6: 물질주의-소유중심, 7: 물질주의-행복추구

〈표 5〉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남성								여성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β	OR	β	OR	β	OR	β	OR	β	OR	β	OR	β	OR	β	OR
연령	-.181	.945	-.115	.964	-.171*	.947	-.092	.971	-.118	.963	-.070	.978	-.138	.957	-.075	.975
교육수준	.164+	1.713	.150+	1.644	.184*	1.844	.165+	1.752	.134	1.586	.120	1.518	.125	1.542	.093	1.399
종교																
가톨릭	.061	1.463	.043	1.313	.049	1.364	.039	1.285	.046	1.453	.028	1.256	.044	1.422	.004	1.037
개신교	.179+	2.564	.172+	2.506	.176+	2.555	.172+	2.547	.206*	3.212	.193*	3.019	.198*	3.096	.143+	2.331
불교	.006	1.049	.007	1.059	.014	1.118	.017	1.152	.064	1.627	.057	1.554	.072	1.735	.076	1.836
소득	-.042	.954	-.136	.857	-.038	.958	-.134	.856	.184*	1.257	.108	1.145	.184*	1.258	.053	1.072
전일제직업			.045	1.191			.030	1.128			.077	1.348			.088	1.425
경제적 어려움			-.023	.954			-.040	.917			.086	1.189			.110	1.256
주관적 계층인식			.182*	1.227			.139	1.173			.148+	1.191			.167+	1.229
부모의 결혼비용지원					.166+	.791	.155+	.800					.084	1.121	.133	1.205
물질주의																
성공판단							.178+	1.722							.269**	2.390
소유중심							-.053	.825							-.036	.877
행복추구							-.053	.829							-.297**	.353
R2	.071		.100		.097		.135		.092		.105		.099		.168	

주: +$p<.10$, *$p<.05$, **$p<.01$, ***$p<.001$; 종교에서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은 무교임.

질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이 한 단계 증가할수록 결혼의향이 없을 경우보다 있을 가능성이 1.65배 가량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 4의 설명력은 남성은 .135, 여성은 .168로 나타나 여성의 경우 설명력의 변화 폭이 더 컸고 이는 물질주의 변인들이 여성의 결혼의향을 유의하게 예측함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Ⅴ. 논의

본 연구는 전국의 2-30대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경제적, 물질적 요인들 및 관련 가치관이 그들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선행연구들에서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된 주요한 경제적/물질적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 탐색하고, 둘째, 결혼의향에 대한 기존 경제적/물질적 요인들의 영향을 고려한 상태에서 물질주의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위에서 제시된 분석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미혼 여성의 소득은 결혼의향을 예측하지만 미혼 남성의 소득은 결혼의향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음을 제시한다. 여러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고려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경제적 요인, 즉 미혼 남녀의 소득 수준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살펴보았을 때(표 5, 모델1 참조) 미혼 여성들의 경우 현재 소득의 정도가 앞으로 자신이 결혼을 할 의향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미혼 남성의 소득은 결혼의향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의 결혼의향은 현재 자신의 소득의 크기와 유의한 상관이 없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주로 남성이 보고하는 소득수준과 결혼의향이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던 기존 연구들과는 차이를 보인다(예를 들면, 고선강 · 어성연, 2013).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해석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먼저 2-30대 남성의 경우 객관적 경제적 지표인 소득/수입의 정도가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다른 주요한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에 비해 그들의 결혼의향을 예측하는 주요한 지표가 아님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본 연구의 분석 전반에 걸쳐 남성의 교육수준이 그들의 결혼의향을 (한계적이긴 하지만)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30대 남성이 결혼의향을 가질지 여부에는 그들의 소득보다는 교육수준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와 같은 결과는 남성들의 경우 자신의 수입이 많고 적음과는 유의한 상관없이 결혼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남성들은 결혼의향을 갖는 것에 있어 자신의 소득수준을 실질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혹은 고려는 하지만 결혼을 위한 충분한 소득수준과 관련된 기준이 개인에 따라 많이 다름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여성의 경우, 본 연구의 결과는 결혼의향을 판단할 때 여성들이 자신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는 경향이 남성보다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결혼과 관련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인 부분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혹은 전보다 자신들의 경제적 능력이나 기여의 필요를 더 참조, 혹은 중요시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연구들에서도 이 같은 결과와 결을 같이 하는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실제로 미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 의하면 여성들의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고(이정은, 2017).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그들의 결혼의향을 낮추거나 없애기보다는 자원의 획득을 통해 궁극적으로 결혼의향을 높이는 것으로, 나아가 이는 여성의 결혼 관련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제시된 바 있다(오민지, 2021). 즉 이 같은 결과들은 결혼의 필요조건으로, 혹은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위해 외벌이가 더이상 충분치 않고 여성의 수입 여부나 정도가 점점 더 중요하게 인식되는 현 세대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혹은 여성들이 자신의 결혼의향/가능성과 관련해서 이를 실질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들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결혼의향을 예측하는 요인으로서 주관적 계층인식이 갖는 의의를 제시한다. 선행연구들에서 결혼의향을 예측하는 것으로 제시된 바 있는 주요한 경제적 변인들 즉 소득, 전일제 직업 여부, 경제적 어려움 정도, 주관적 사회계층 인식의 영향력을 함께 비교 분석한 결과, 주관적 사회계층 인식이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을 예측(남성은 유의하게, 여성은 한계적으로 유의하게)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소득, 전일제 직업 여부,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정도는 남녀 모두 결혼의향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변인이 주관적 계층인식에 비해 결혼의향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작거나, 혹은 해당 변인들이 주관적 계층인식을 통해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 같은 결과는 개인 수준의 경제적 요인들 중 다소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소득 수준과 전일제 취업 여부, 그리고 다소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주관적 계층인식과 경제적 어려움의 영향력을 직접 비교하였을 때, 주관적 계층인식, 즉 자신이 우리 사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수준에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가 결혼의향을 보다 실질적으로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미혼 남녀들의 결혼의향은 그들이 보고하는 객관적 요인들인 취업 여부나 소득의 정도보다 자신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대한 주관적 평가, 혹은 타인과의 비교에 기반한 상대적 계층인식에 더 주요하게 좌우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의의는 특히 여성의 경우 첫 번째 분석에서 결혼의향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소득이 두 번째 분석에서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처럼 주관적 계층인식이 결혼의향을 예측하는 주요한 요인임, 즉 객관적 소득의 수준이나 전일제 직업 여부 보다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계층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결혼의향을 예측한다는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 미혼 청년들이 자신에 대한 사회적 비교와 평가를 통해 결혼을 할지, 혹은 할 수 있을지를 판단함의 가능성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다. 즉, 내가 객관적으로 얼마를 버는지 보다 주변 사람들에 비해, 혹은 사회 전반에서 내 수입과 주거 수준 등 경제적 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느끼는지, 어디에 살면서 주변에서 어떤 모습들을 보는지, 나아가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절대적인 월급이나 연금의 액수보다는, 다소 모호하지만 자신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대한 인식에 따라 자신이 결혼을 할 의향이 있는지, 혹은 결혼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경향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결혼 후 경제생활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고 결혼 준비에도 더 많은 부담을 느끼는 남성들의 소득 자체는 그들의 결혼의향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는 반면, 그들이 스스로에 대한 주관적 사회계층 인식은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이 같은 현실적 상황들을 다소 반영하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본 연구의 결과는 남성의 경우 결혼을 위한 부모의 지원이 그들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시한다. ‘결혼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또 다른 주요한 경제적 요인으로 분석에 포함한 결과(〈표 5〉 모델 3), 남성의 경우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한계적으로 유의하게 결혼의향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의 경우 부모가 결혼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다고 기대할수록 결혼의향을 가질 확률이 높지만, 여성이 기대하는 부모의 결혼지원 정도는 그들의 결혼의향을 예측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남성들이 결혼을 하기 위한 경제적 준비에 더 큰 부담을 갖고 있고, 대개 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부모의 지원/도움을 더 필요로 하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남성들은 자신의 결혼을 위해 부모가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정도가 클수록, 혹은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다고 기대할수록 본인이 결혼의향을 가질 확률이 높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권오재(2017)에 따르면 부모의 경제적 자원은 자녀의 성취를 도울 뿐 더러 결혼이행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남성의 경우 부모의 자산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자원을 충당하여 결혼시장에서 전통적 성 정체성을 지켜내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오지혜

(2020)의 경우에도 결혼이행에 대한 부모의 경제력 효과가 남성에게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주장들은 본 연구의 결과와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남성들의 경우 자신의 소득보다 부모의 결혼지원 가능성 정도가 결혼의향을 더 주요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나는 사실은 이 같은 경향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결과는 최근 선행연구 중 부모의 주택결혼비용 지원가능성이 결혼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황인자(2021)의 결과와도 부분적으로 그 결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기존 연구들에서 결혼의향을 예측하는 것으로 제시된 바 있는 경제적/물질들 요인들의 영향력을 비교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그들의 결혼의향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남성의 경우 결혼을 위한 부모의 재정적 지원 정도가, 여성의 경우 자신의 소득이 각각의 결혼의향을 예측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확인된 이 같은 결과들, 즉 여러 경제적인 요인들과 결혼의향 간의 유의한 관계들은 미혼 청년들의 결혼의향이 단지 결혼을 원하는 여부, 혹은 결혼에 대한 의지만이 아니라, 자신이 결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포함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확인된 주관적 계층인식의 의의, 즉 본인의 사회적 경제적 계층/위치에 대한 인식이 결혼의향을 가장 주요하게 예측하는 변인이라는 점은 앞으로 결혼을 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현재의 소득과 같은 객관적, 경제적 요인들보다 자신의 사회경제적 능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로, 위와 같은 해석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남성의 경우 부모의 지원 정도, 여성은 자신의 소득 정도가 결혼의향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또한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미혼청년들이 갖는 결혼을 위한 남녀의 경제적 준비나 능력에 대한 인식과 차이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결혼의향이 있다, 혹은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결혼을 할지에 대한 개인의 의도, 바람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표현이 단순히 자신의 바람이라기 보다는 자신이 결혼을 할 수 있을지(능력)에 대한 판단에 더 가깝거나, 혹은 그러한 판단/평가가 상당히 많이 반영된 의지일 수 있는 것이다. 후속 연구들은 결혼의향이 갖는 이 같은 특성을 고려, 연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요인들 자체의 영향과 구분하여 미혼 청년들이 갖는 물질에 대한 관점, 즉 물질적 가치관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남녀 간 차이는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물질주의, 즉 물질에 대한 가치관은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을 이해함에 있어서 경제적 요인들뿐 아니라 경제적 요인들에 대한 태도나 관점 또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물질주의의 세 하위요인(성공판단, 소유우선시, 행복추구)을 분석에 포함시킨 결과 여성의 경우 성공판단과 행복추구가 결혼의향에 각각 정적,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의 경우 성공판단이 결혼의향에 한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다양한/주요한 경제적 요인들의 영향을 고려한 상황에서도 물질주의의 하위변인들이 결혼의향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대한 물질주의의 영향력과 그 의의는 상당히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성공판단의 경우 물질의 소유를 통해 성공을 판단하는 경향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미혼 남녀가 평소 물질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성공을 판단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자신도 결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자신과 타인의 인생의 성공이라고 여길수록 결혼도 하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반면, 돈이 없으면 결혼할 수도 없고 심지어 결혼해서도 안된다고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돈이 없어서 연애, 결혼, 출산을 못하고 포기한다고 표현하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면, 이 같은 결과는 현재 사회의 현실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남성에 비해 여성들 가운데서 이 같은 경향성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사실로,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재확인 및 보다 구체적인 탐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행복추구는 그와 반대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물질을 통한 행복추구는 여성의 결혼의향을 부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추구는 물질의 소유와 획득이 삶의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준다는 믿음을 반영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이 같은 경향이 높을수록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즉, 미혼 여성들이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수록 결혼은 하지 않은 것이 더 타당하고, 물질의 소유와 그를 통한 만족 자체에 가치를 둘수록 결혼을 고려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결혼은 그와 같은 가치, 즉 행복의 추구에 반하는 선택이자 행위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는 미혼 남녀들의 결혼의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객관적 경제적 요인들, 즉 수입의 크기나 부모의 지원 자체보다 그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더 중요하고, 궁극적으로는 물질에 대한 가치, 즉 개인의 관점과 태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말하듯이 현재 우리나라 미혼 청년들이 절대적으로 돈이 없거나 부족하여 결혼을 안 하거나 못 하기보다는, 자신이 느끼기에, 상대적으로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한다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해석일 수 있고, 나아가 그러한 주관적 인식과 판단보다 개인의 돈에 대한 가치나 태도가 중요하거나 그러한 가치나 태도가 주관적 인식과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이 같은 결론은 그 동안의 많은 연구들과 그 결과들에 근거하여 실시된 미혼 청년들의 결혼과 관련된 크고 작은 개입과 접근들이 그 효과/효율성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반영한다. 즉 많은 미혼 청년들이 객관적으로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고 그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 영향력은 기대만큼 크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미혼 청년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경제적, 물질적 요인들의 제공과 관련된 더 나은 대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머무르기 보다는, 우리사회 전반에 형성된 보다는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그러한 가치관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개입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순차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최근 다른 많은 요인들에 비해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가치관 요인이 미혼 청년들의 결혼의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에 기반하여 결혼, 출산, 가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입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부부, 양육 관련 프로그램들과 같은 미디어의 의도치 않은 역기능, 즉 결혼과 양육에 대한 불안을 높이고 부정적 관점을 갖게 하는 영향에 대한 논의들도 이 같은 관점, 가치관의 중요성의 인식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다(박혜민 · 전귀연, 2018). 본 연구는 물질에 대한 가치관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제시한다. 서론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질을 자신의 삶을 가치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고, 동시에 특히 젊은 층에서는 가족에 대한 가치를 거의 두고 있지 않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전방위적 개입들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이면을 조금이나마 더 실질적으로 이해함에 기여하고 있음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제시된 물질주의 관련 선행연구 고찰 및 결과 관련 논의는 국내 미혼 청년들의 물질에 대한 가치관, 정신건강 및 심리적 안녕, 그리고 결혼 및 출산 의향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후속 연구들을 통해 이와 같은 변인들을 포함한 결혼의향과 관련된 다른 주요 변인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어떤 과정을 통해 서로 영향을 미치며(매개/경로분석), 어떤 요인들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지는지(조절연구), 또한 결혼의향을 넘어 실제 결혼의 이행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예를 들면, 정희경 · 신형진, 2020) 등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확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제안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해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가장 일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변인은 통제변인으로 포함된 종교, 특히 개신교라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무교에 비해 기독교라고 보고한 사람들은 결혼의향을 가질 확률이 전 분석 과정을 통해 유의하게 나타났고, 특히 여성의 경우 그 영향력이 상당히 분명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 포함된 여러 경제적인 요인들에 비해 종교로 인한 신념이나 관점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태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가 제시하는 관점, 태도의 중요성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 또한 고려할 만한 중요한 점은 연구 결과 전반에서 경제적 요인들의 설명력의 크기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즉 본 연구의 위계적 분석을 통해 어떤 변인들이 더 혹은 덜 주요한 결혼의향 예측변인인지, 그리고 그러한 패턴에 남녀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 같은 변인들의 영향력이 크지 않음도 제시된 설명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표 5〉 참조). 이 같은 결과는 다른 연구들에서 제시된 바와 마찬가지로(박선영 · 이재림, 2022), 본 연구에서도 기존에 결혼의향을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된 다양한 경제적 변인들을 분석에 함께 포함하였지만 결혼의향에 대한 설명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에 선별적으로 포함된 경제적 요인들이 선행연구들에서 결혼의향을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된 모든 요인들을 대표하지는 못한다. 연구자들은 데이터 수집 시 더 많은 변인들을 포함시켰고 가능한 이들을 분석에 포함하고자 하였으나 변인 간 높은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변인들을 선정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자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전국에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참여자들을 모집하였으나 특정 설문조사기관에 등록된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그 수가 500명 정도에 그쳐 국내 미혼 남녀들에 대한 대표성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미혼 청년들 20대와 30대를 함께 분석에 포함하였는데, 20대와 30대가 갖는 결혼의향 및 예측 요인들에 있어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바, 추후 연구에서는 나이대를 구분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 확장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고선강 · 어성연(2013). 30대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대한 경제자원의 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1), 63-79.
2) 권소영 · 강시은 · 엄세원 · 박지수 · 이재림(2017). 청년 남녀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세대관계 특성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지, 21(4), 3-25.
3) 권오재(2017). 결혼의 계층화와 전통적 성 정체성의 고착: 부모 자산이 성인 자녀의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김경미(2014). 대학생의 물질주의와 주관적 안녕감 및 대학생활 만족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10), 295-314
5) 김경미(2019). 대학생의 사회비교 경향성이 물질주의를 매

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12), 865-874.

6) 김상윤(2021).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구광역시 30-44세 미혼남녀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 김영희(1996).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부모 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 김희정(2018). 미혼 여성의 다차원적 빈곤과 결혼의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 2018(9), 199-220.
9) 김혜영 · 선보영(2011). 여성의 만혼화와 결혼의향-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12(2), 3-35.
10) 남희수(2009). 저소득 모자가정 가구주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가족기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모자보호시설을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 박선영 · 이재림(2022). 한국 청년의 결혼의향 영향요인 메타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7(1), 107-137.
12) 박주희(2016). 가족가치관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대가 남녀 대학생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4(4), 21-35.
13) 박주희(2017). 취업미혼남녀의 결혼지원정책 만족도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1(4), 1-15. DOI : 10.22626/jkfrma.2017.21.4.001.
14) 박지수 · 이재림(2016).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청년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진로기대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2016 추계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62-263.
15) 박혜민 · 전귀연(2018). 미혼남녀의 정서적 · 당위적 · 기능적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2(4), 53-80.
16) 변수정 · 조성호 · 이지혜(2018).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간의 연관성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7) 손지성(2017). 한국 빈곤층 남성들의 연애와 결혼 포기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8) 손해인 · 이수민 · 조성봉(2022). MZ세대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통합적 탐색. 한국가족치료학회 2022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05-122.
19) 신희성 · 김태익 · 박유빈 · 박선웅(2017). 물질주의와 정신건강: 경제적 수준으로 조절되지 않는 부적관계. 보건사회연구, 37(3), 368-397.
20) 양다연 · 유계숙(2020). 주관적 사회계층 인식이 결혼 및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생애학회지, 10(1), 77-100.
21) 어주경(1998).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2) 오민지(2021).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관한 연구: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통합모형의 검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3) 오지혜(2020).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이 자녀의 결혼이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패널 1998-2016년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0(4), 50-81.
24) 유지혜 · 설경옥(2018). 한국판 물질주의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3), 385-410.
25) 윤태실 · 민주홍(2020). 부모-자녀 쌍 자료를 활용한 가족가치관과 미혼성인자녀의 결혼의향과의 관련성: 세대관계의 질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5(3), 105-124.
26) 이수민 · 조성봉(2022a). 20-30대 성인의 결혼에 대한 태도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경제적 수준의 조절효과. 한국가족치료학회 2022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44-146.
27) 이수민 · 조성봉(2022b). 결혼-자녀가치관에 따른 미혼 성인 남녀의 잠재프로파일 분석: 물질주의가 미치는 영향 탐색. 한국가족치료학회 2022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59.
28) 이정은(2017). 미혼여성의 결혼의향 결정요인에 관한 통합적 연구. 평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9) 원아름(2015).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0) 정의준 · 유승호(2018).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주관적 계층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문화산업연구, 18(3), 89-99.
31) 정희경 · 신형진(2020). 결혼가치관의 변화가 초혼이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학회, 32(1), 132-155.
32) 조성호 · 변수정(2020). 미혼인구의 이성교제와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0(4), 82-114.
33) 조예랑(2020). 발현성인기(20-29세) 청년의 가족건강성, 결혼가치관, 성역할태도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총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4) 최연주 · 문정희 · 안정신(2020). 미혼 남녀의 가족건강성과 결혼의향의 관계: 가족가치관의 매개효과.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31(4), 663-679.
35) 최효미(2017). 청년 미혼층의 결혼 및 출산 의향에 관한 연구. 가정과삶의질학회 2017 공동춘계학술발표대회 자료집. 49-55.
36) 홍은영(2011). 미혼성인의 결혼의향 및 태도와 부모의존의 관계.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7) 황인자(2021). 부모의 지원과 조직문화, 결혼지원정책이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1), 15-34. DOI : 10.22626/jkfrma.2021.25.1.002.
38) Belk, R. W.(1984). Three Scales to Measure Constructs Related to Materialism: Reliability, Validity, and Relationships to Measures of Happines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1, 291-297.

39) Dean, L. R., Carroll, J. S. & Yang, C.(2007). Materialism, perceived financial problems, and marital satisfaction.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35(3), 260-281.

40) Dittmar, H., Bond, R., Hurst, M. & Kasser, T.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m and personal well-being: A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7(5), 879–924.

41) Lempers, J. D., Clark-Lempers, D. & Simons, R. L.(1989). Economic hardship, parenting, and distres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25-39.

42) Li, N. P., Lim, A. J., Tsai, M. H. & O, J.(2015). Too materialistic to get married and have children?. PloS one, 10(5), e0126543.

43) Richins, M. L. & Dawson, S.(1992). A consumer values orientation for materialism and its measurement: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3), 303-316.

44) Silver, L., Kessel, P., Huang, C., Clancy, L. & Gubbala, S.(2021). "What Makes Life Meaningful? View From 17 Advanced Economies" Pew Research Center.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21/11/18/what-makes-life-meaningful-views-from-17-advanced-economies/

■ 투 고 일 : 2023년 12월 27일
■ 심 사 일 : 2024년 01월 24일
■ 게재확정일 : 2024년 02월 19일